

김지사 “‘연말까지 결론’ 광주시 일방적 데드라인 불가능”

● ‘민간·군공항통합이전’ 전남도-광주 국회의원간담회
“姜시장, 불신 해소 위해 일련의 발언 사과를” 강경 기조 확고
“시간은 광주시가 아닌 기피시설 와야 하는 무안군이 말할 일”
양부남 “입장차이 크다는 점 느껴... 일말의 해결 가능성도 있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데드라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고 광주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김지사는 해묵은 불신 해소를 위해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합흥차사’, ‘플랜B’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공항 문제 당사자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강 시장의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 필실에서 열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전남도-광주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전남도가 차근차근 무안군민에 대한 설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같이 밝혔다.

김지사는 “지금 무안군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연말까지 안 되면 플랜B 발언하시니, 압박해서 받아 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 시장의 말대

로) 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시간을 정하는 것은 기피시설이 와야 하는 무안군이 말해야지, 광주시가 하는 게 아니다. 내년 상반기도 쉽지 않다”고 최근 강 시장이 내놓은 ‘연말 데드라인’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광주시에 ▲무안군민의 해묵은 불신 해소를 위한 사과 표명 등 광주시의 인식 전환 ▲강기정 시장의 플랜B, 합흥차사 등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통합패키지 제시 ▲현 광주공항 부지 종합 개발 마스터플랜 비전 제시 ▲일방적·밀어붙이기식 방식 중단 ▲광주 국내선 일부 노선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등을 요구했다.

김지사는 “무안군민은 소음 피해보다 광주시의 국내선 이전에 대한 약속 미이행에 대한 불신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광주시의 주객 전도성 언론플레이는 전



‘공항공이전’ 道 입장 설명 19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도의 노력을 무시하고 전남도민 전체를 비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은 개발차익금에 불과해 무안군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광주시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 무안군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사는 또 “광주시의 군공항 종전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비전 제시가 없는 만큼 무안군민들은 광주지역

소음 피해 때문에 무안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광주시의 일방적·밀어붙이기식 방법은 무안군민을 자극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지사는 “2025년 상반기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해 협력하고 후보지 선정 시 (광주시가) 광주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약속을 표명해야 한다”며 “시간 대 거리 공항 이원화는 장기적 손실을 초래

하고 무안공항 활성화 시 광주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공항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광주시·무안군과 자주 만나 입장을 건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중재자 역할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예상했던 것처럼 (광주시·전남도·무안군 사이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김영록 지사가 공항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절망할 상황은 아니다. 일말의 해결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에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준호(북구갑)·박군택(광산갑) 국회의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남도에선 김영록 지사, 명창환 행정부지사, 장현범 기획조정실장, 조석훈 정책기획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했다. /김재정 기자

‘사상 최악’ 가을 폭염 드디어 끝난다

폭염특보 해제 내일부터 최고기온 30도 ↓ ... 주말·휴일 비
지긋지긋했던 사상 최악의 가을 폭염이 드디어 끝난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날부터 22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의 영향으로 한때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긴 무더위는 21일부터 조금씩 꺾이겠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은 150mm 이상이다. 이 기간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50mm

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전남 내륙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20일 최고기온은 완도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가장 덥겠다. 이어 무안·진도·흑산도 30도, 나주·장성·영광·함평·영암·강진·해남·여수·고흥 30도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은 28-29도 분포를 보이겠다.

21일 최고기온 분포는 전남보다 소폭 하락한 27-30도로 예상됐다. 이날 진도·완도·해남·흑산도의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22일 광양·여수·

보성은 최고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겠다. 나머지 지역은 26-27도로 예보됐다.

다음 주(23-29일) 최고기온은 평년(24-27도)보다 높은 26-29도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의 한기를 차단했던 티베트 고기압이 이번 주말부터 점차 약화됨에 따라 더위도 꺾이겠다”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제14호 태풍 폴라산의 열대 수증기가 다양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광주·목포·영광·보성·광양의 최고기온은 각각 35.8도, 34.9도, 36.3도, 35도, 36.3도로 측정되면서 9월 중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연재영 기자

美, 기준금리 0.5%p 인하 ‘빅컷’

연내 0.5%p 추가 인하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상마침표를 찍었다. ▶ 관련기사 13면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0.5%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총 12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p 인하에 찬성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이로써 기준에 2.00%p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p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p>가정에서</p>	<p>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 2,138원</p>	<p>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 4,693원</p>	<p>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 1,668원</p>	<p>샤워시간 1분 ↓ ₩ 1,333원</p>	<p>샤워 중 물 잠그기(비누칠 등) ₩ 4,000원</p>
<p>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p>	<p>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5,631원</p>	<p>대중교통 이용 ₩ 69,010원</p>	<p>1등급 전기차 타기 ₩ 68,672원</p>	<p>1등급 타이어 사용 ₩ 14,018원</p>	<p>적정 공기압 유지 ₩ 5,077원</p>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KECN 한국에너지연구원
 KOMIPO 한국중부발전
 WPP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미티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동구